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 학위논문

19세기 전반기 미국의 국민 정체성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가 이해한
국민 관념을 중심으로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사학과

조희수

국문초록

본고는 19세기 전반기 미국의 국민 정체성을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의 국민 관념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웹스터는 당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연방과의 정치철학을 계승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방의 통합을 도모하는 내셔널리즘을 표방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그는 흔히 건국의 아버지들이 표방한 보수적인 공화주의를 지향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연구 경향으로 인해,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도구로 이해되었고, 그가 주장한 연방 통합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반면에 그의 내셔널리즘은 주권론자(states' righters)들의 관점과 비교·대조되면서 이론적 차원의 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 연설을 포함한 다양한 문헌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웹스터에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일은 동시에 국가와 국민의 본질에 대한 탐구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웹스터에게 중요했던 연방 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미국의 국민 정체성 규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웹스터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수호할 것인지를 자문(自問)하며 해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본 논문에서는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의 기저에 깔려 있는 국민 관념을 조명한다. 그에게 핵심적인 가치는 헌법과 연방이었다. 살아생전 그가 받은 '연방의 수호자'와 '헌법의 수호자'라는 별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웹스터는 헌법의 의미와 연방의 의의에 관심을 가지며 이를 수호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창했다. 웹스터가 찾은 연결고리는 바로 국민이었다. 국민은 헌법 계약의 당사자로서 주권자이며, 따라서 국민의 의지를 실행에 옮기는 작업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다. 웹스터는 주(州) 주권을 제한하고 연방을 통합하는 것을 그 과제 중 하나로 주장했다. 웹스터는 이와 같은 주장을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Webster-Hayne Debate)에서 논리적으로 개진하며 미국 국민은 미국의 독특한 정치 구조를 주조한 존재이자 이 안에서 의미를 갖는 '헌법적인 주권자'라는 자신의 관점을 피력했

다.

국민의 문화적 측면 또한 웹스터의 관심사였다. 그는 절차적·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연방의 통합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서적 연대감 형성을 통해 단일한 집단으로서의 일체감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역사적 경험을 회고하고 그 안에서 공통의 조상, 과거와의 연속성, 같은 운명 등을 깨닫도록 촉구하는 일은 이러한 정서적 연대감 형성의 일환이었다. 심지어 웹스터는 정치·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집단의 연방 편입을 차단함으로써 연방의 통합을 유지하고자 했다. 가령 그는 미국 정체(政體)에 대한 뉴멕시코인의 무지를 근거로 들어 멕시코 전쟁을 전면적으로 반대했다. 뉴멕시코인은 미공화국이 제공하는 정치·문화적 경험의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민과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동체의 결속과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배척해야 했다. 이러한 웹스터의 관점은 다분히 인종주의적이었는데, 웹스터는 미국민의 수호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이를 정당화했다. 그에게 미국민은 국가 통치의 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구성원의 삶의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문화적 복합체로서 공화주의가 제공하는 경험 체계 안에서 구조된 공화주의자였다.

이렇듯 웹스터에게 미국민이란 공통의 조상, 공통의 문화, 같은 운명으로 결속되어 있는 문화적 집단인 동시에 헌법 그리고 연방과의 상호 규정 관계 안에서 형성된 정치적 집단이었다. 웹스터는 이와 같은 미국민의 정치·문화적 연대감을 국민 정체성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립하여 연방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어: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 국민, 네이션(nation), 내셔널리즘(nationalism), 공화주의(republicanism), 헌법, 연방(Union)

학번: 2013-20044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II. 국민의 토대	8
1. 1820년대 연설: 역사적 경험	8
2. 1820년대 대법원 변론: 연방정부와 헌법	14
III. 국민의 형성	21
1.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 제1막: 지역주의 갈등	21
2.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 제2막: 연방과 국민	26
IV. 국민의 수호	32
V. 결론	40
참고문헌	43
Abstract	51

I. 서론

18세기 말 미국은 단일한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없는 국가였다. 지역·정당·종교 등 국가의 구성요소 안에는 광범한 다양성이 존재했고, 이는 자연스레 가치관의 차이와 경쟁을 낳았다. 이러한 다원성은 자유를 장려했지만, 한편으로는 질서와 안정을 확립하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후자를 염려한 일부 지도층은 강력한 중앙정부 구축에 해결책이 있다고 보고 1787년에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기틀이 잡히고 국민 정체성 또한 보다 더 확실한 전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경쟁과 갈등의 단초가 마련되기도 했다. 초기 미국사회는 혁명의 유산과 연방주의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구심력을 쉽사리 확립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였으며 자국민의 긍지 또한 높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이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을 때 미국의 국민 정체성은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민 정체성은 언제, 어떠한 과정 속에서 빚어진 것일까?

일반적으로 국민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네이션(nation)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네이션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다의성 때문에 정의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에 따라 종족적(ethnic)·시민적(civic) 네이션 및 내셔널리즘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¹⁾ 미국은 잉글랜드와 더불어 후자의 전형으로 간주된다. 보편적 시민사회의 이념을 가장 활발하게 생산하고 다양한 인종, 문화, 관습 등을 포용하는 개방적인 사회를 떠올리면 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네이션이 민족이 아닌 국민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미국의 경우 근대의 산물로 간주되는 국민 정체성이 전통적인 정체성에 선행해서 발전했다. 사회학자 리아 그린펠드(Liah Greenfeld)에 따르면 미국은

1) 일반적으로 종족적 네이션은 혈연적·문화적 동일성에 기초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반면, 시민적 네이션은 계약적·정치적 공동체를 의미한다.

종교, 언어, 영토와 같은 요인들로부터 구조된 전통적인 정체성이 국민 정체성에 의해 대체되는 ‘보편적인’ 발전 경로를 밟지 않았다.²⁾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을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정체성에서 찾는다.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토대 위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동질감이 모국과의 이해관계 차이 및 정서적 괴리 심화로 말미암아 더 뚜렷해졌으며, 혁명 전야에 이르러서는 식민지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며 식민지인들을 결속시키는 이른바 식민지인의 정체성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³⁾ 식민지 시대에 발전한 정체성을 과연 ‘국민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독립과 건국의 성공은 이것이 국민 정체성과 같은 기능을 했음을 시사한다.⁴⁾ 문제는 이러한 관점과 사실관계의 결합이 종종 미국 건국 이전에 미국인이 존재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시각은 국민을 주어진 것(given)으로 간주하는 학계의 연구 경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령 미국의 국민 정체성 연구를 주로 담당했던 지성사(intellectual history) 연구자들은 국민을 탐구의 대상보다는 소여(所與)로 간주했다.⁵⁾

그러나 최근 들어 네이션과 국민 정체성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를테면, 지구사(global history) 연구자들은 기존의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전세계와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사를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사의 지구화(globalization)를 선도하는 토마스 벤더

2) Liah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420.

3) 일레로 브린(T. H. Breen)은 그의 책 『혁명의 장 *The Marketplace of Revolution*』에서 식민지 시대의 소비혁명과 이것의 정치적 함의 사이의 관계 분석을 통해 소비자 정치(consumer politics)가 혁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로서의 경험이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저항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문화 자본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T. H. Breen, *The Marketplace of Revolution: How Consumer Politics Shaped American Independ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xv.

4) 식민지 시대 각 식민지의 발전 양상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로는 Alan Taylor, *American Colonies: The Settling of North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2) 참고하라.

5) Johann N. Neem,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Age,” *History and Theory* 50, no. 1 (2011): 63.

(Thomas Bender)는 “미국사에 다른 역사가 함축되어 있듯이 다른 역사에도 미국사가 함축되어 있”⁶⁾기 때문에 네이션의 경계를 초월한 접근 방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층위는 다르지만 정체성 연구 또한 기존의 정치·지도층 중심의 서술에서 벗어나 문화·민중의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다. 가령 초기 공화국 시기(Early Republic, 1789-1861)의 선구적인 정치문화 연구자로 평가받는 데이비드 왈드스트레이처(David Waldstreicher)는 그의 대표작 『끊임없는 축제의 향연 한가운데서 *In the Midst of Perpetual Fetes*』에서 퍼레이드, 유세 활동, 종교 집회와 같은 대중 참여 중심의 활동이 국민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이렇듯 최근에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과 공통의 의미를 바탕으로 미국사를 재구성하려는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국민 정체성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세부적인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네이션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미국 네이션이 역사적인 구성물임을 재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⁷⁾

새롭게 제시된 기준과 관심으로 인해 기존 연구들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나 주제별로 재평가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6) Thomas Bender, “Historians, the Nation, and the Plenitude of Narratives,” in *Rethinking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Age*, ed. Thomas Bende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6; 벤더와 더불어 지구사적 관점에서 미국사를 재고하는 연구로는 David Thelen, “The Nation and Beyo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United States Hist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5, no. 3 (1999); Rosemarie Zagari, “The Significance of the “Global Turn” for the Early American Republic: Globalization in the Age of Nation-Building,”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31, no. 1 (2011) 참조하라.

7) David Waldstreicher, *In the Midst of Perpetual Fetes: The Making of American Nationalism, 1776-18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53-107, 177-293; 그밖에 Glenn C. Altschuler and Stuart M. Blumin, *Rude Republic: Americans and Their Politics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John L. Brooke, “Cultures of Nationalism, Movements of Reform, and the Composite-Federal Polity: From Revolutionary Settlement to Antebellum Crisis,”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9, no. 1 (2009) 참조하라.

않다. 북부 내셔널리즘 연구자 수잔 메리 그란트(Susan-Mary Grant)는 미국사의 다른 주제들과 비교했을 때 내셔널리즘 연구는 상당히 주변화되어 있으며, 진행되는 연구마저도 혁명 혹은 미국 내전과 같은 전환기나 지역과 인종처럼 표면적으로 차이가 드러나는 주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탄했다.⁸⁾ 실제로 그녀가 연구 부족을 호소하는 19세기 전반기는 내전 이전 시기(Antebellum)로 지칭되며 그 자체의 독립성이 종종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 시대에 초기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두드러지게 발전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대우는 부당하다. 미국 네이션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오늘날, 초기 공화국 시기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시기에 국민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실마리는 19세기 전반기 대표적인 정치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Daniel Webster, 1782-1852)의 내셔널리즘에서 찾을 수 있다. 당대 미국 정치계의 ‘위대한 삼인방(The Great Triumvirate)’⁹⁾ 중 한명으로 꼽히는 그는 1813년에 연방파(Federalist) 일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래 생을 마감하는 1852년까지 국민 공화당(National Republican Party)과 그 후신격인 휘그당(Whig Party)의 주요 인사로 맹활약했다. 이 기간에 웹스터는 하원의원, 상원의원, 국무장관직을 역임하며 연방 통합과 공동의 이해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삼는 내셔널리즘을 표방했다. 살아생전에 받은 ‘헌법의 수호자(Defender of the Constitution)’와 ‘연방의 수호자(Defender of the Union)’라는 별칭은 그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그의 업적 중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Webster-Hayne Debate)의 두 번째 연설(Second Reply to Hayne)은 미

8) Susan-Mary Grant, *North over South: Northern Nationalism and American Identity in the Antebellum Er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6-7.

9) ‘위대한 삼인방’의 나머지 두 인물은 존 칼훈(John C. Calhoun)과 헨리 클레이(Henry Clay)이다. 삼인방은 공통적으로 화려한 언변과 그에 버금가는 정치적 업적으로 당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았지만 셋 중 어느 누구도 백악관에 입성하지 못했다.

국 의회사 최고의 연설 중 하나로 손꼽히며 19세기 전반기를 개관하는 개설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¹⁰⁾

지금까지 진행된 웹스터의 내셔널리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노선으로 분류 가능하다. 초기 연구자들은 웹스터의 정치적 목적을 파악하고자 했다. 피터 패리쉬(Peter J. Parish)는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1830년 토론을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권력 투쟁으로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뉴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웹스터의 목적은 남부와 서부 사이의 정치적 동맹 가능성을 견제하는 동시에 동부와 서부 사이의 정치적 동맹을 견고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 윌리엄 프리링(William W. Freehling) 또한 토론의 의의를 서부와 남부의 정치 동맹 약화에서 찾으며 헌법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주안점은 다르지만 노먼 브라운(Norman D. Brown)은 웹스터의 궁극적 관심사는 정권 장악이었다고 설명하며 1830년 토론에서 그가 개진한 주장이 어떻게 1832년과 1833년에 새로운 정치 동맹을 모색하는 토대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한다. 정리하자면, 웹스터에게 1830년 토론은 뉴잉글랜드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현인 동시에 정당 개편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려는 개인적 야망의 출발점이었다.¹¹⁾

한편, 후대 연구자들은 웹스터 내셔널리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했다.

10) 웹스터에 대한 전기적 연구로는 Maurice G. Baxter, *One and Inseparable: Daniel Webster and the Union* (Cambridge;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Robert V. Remini, *Daniel Webster: The Man and His Tim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Thomas Brown, *Politics and Statesmanship: Essays on the American Whig Par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49-92 참조하라.

11) Peter J. Parish, "Daniel Webster, New England, and the West,"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4, no. 3 (1967): 542-546; William W. Freehling, *Prelude to Civil War: The Nullification Controversy in South Carolina, 1816-1836* (New York: Harper & Row, 1965), 186; Norman D. Brown, *Daniel Webster and the Politics of Availability*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69), 1-14; 그밖에 1820년대 중반 이후 웹스터의 정치 행보에 대한 연구로 Sydney Nathans, *Daniel Webster and Jacksonian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참조하라.

메릴 피터슨(Merrill D. Peterson)은 1830년 토론에서 웹스터가 연방과 자유를 미국 정체성의 핵심 가치로 상징했다고 분석하며 양자를 그가 표방한 내셔널리즘의 요체로 파악했다. 한편, 할로 셰들리(Harlow W. Sheidley)는 웹스터가 1830년 토론을 포함한 정치 활동 전반에서 뉴잉글랜드의 가치를 미합중국의 가치와 동일하게 만드는데 주력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그는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을 지역주의를 희석하고 가리기 위한 장막이자 수사의 일환으로 보았다. 같은 맥락에서 크리스토퍼 아팍(Christopher Apap)은 웹스터가 뉴잉글랜드 공화주의를 외국에 전파해야 할 이상적인 전범(典範)으로 삼았다고 설명하여 그의 내셔널리즘을 ‘지역적 초국가주의(Sectional Transnationalism)’로 정의했다.¹²⁾

이러한 해석은 웹스터가 표방한 내셔널리즘의 성격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은 네이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정되는 관념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연구들에서는 웹스터의 네이션 관념, 즉 국민 관념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웹스터에게 미국 국민이 무엇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가 지칭하는 국민이란 어떤 집단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연구의 초점을 주로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에 맞추다보니 생긴 한계점으로 보인다. 특정한 정치적 맥락에서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을 도출하고 이해한 결과 그의 국민 관념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어렴풋하게 드러나는 국민 관념마저도 시대적·공간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웹스터가 표방하는 내셔널리즘의 대상이 되는 국민에 대한 탐구를 간소화하거

12) Merrill D. Peterson, *The Great Triumvirate: Webster, Clay, and Calhou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170-183; Harlow W. Sheidley, "The Webster-Hayne Debate: Recasting New England's Sectionalism," *The New England Quarterly* 67, no. 1 (1994): 6-9; Christopher Apap, "The Genius of Latitude: Daniel Webster an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in Early America,"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30, no. 2 (2010): 222-223; 그 밖에도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 Sandra M. Gustafson, "Daniel Webster and the Making of Modern Liberty in the Atlantic Worl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116, no. 2 (2006)를 참고하라.

나 생략함으로써 그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마저도 단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웹스터의 국민 관념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은 웹스터의 역사관과 헌법관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웹스터가 강조하는 문화적·제도적 특징과 그의 국민 관념 사이의 연관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제3장은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을 중심으로 웹스터의 국민 관념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먼저, 웹스터와 헤인의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양자의 차이가 어떻게 연방·헌법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웹스터의 국민 관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1840년대 영토 팽창이라는 시대적 맥락 안에서 웹스터가 뉴멕시코인과 미국인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는 방식을 살펴보면서 그의 국민 관념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II. 국민의 토대

1. 1820년대 연설: 역사적 경험

1800년 7월 4일, 웹스터는 뉴햄프셔주 하노버(Hanover, New Hampshire)에서 열린 독립선언 24주년 기념식의 연사로 초대받았다. 당시 18살의 다투머스 대학(Dartmouth College) 재학생이었던 웹스터는 독립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청중 앞에서 기죽지 않고, “주민, 형제,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3백만여 명의 사람을 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사건, 다름 아닌 네이션(nation)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¹³⁾라고 당돌하게 운을 뗐다. 청중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지자 그는 혁명 영웅들이 이루어낸 성과와 헌법 제정자들의 지혜를 열거하며 네이션을 찬양했다. 비록 혁명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른바 ‘제 1세대(First Generation)’¹⁴⁾였지만, 그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한 과거를 역동적으로 묘사하며 그 연속선상에 있는 현재를 희망차게 그려냈다. 18살의 어린 웹스터에게 미국은 태생부터 특별한 국가이자 자신과 같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젊고 전도유망한 신생 공화국이었다. 한편, 당대 한 비평가는 웹스터의 연설을 두고 문장은 유려하지만 그 내용은 공허하다고 평가했다.¹⁵⁾ 기실 웹스터가 찬양해 마지않았던 네이션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헌법과 혁명에 대한 언급은 이것이 정치적인 산물임을 시사했지만 그뿐이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년 연설에서 웹스터는 하나된 미국에 대한 믿음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로버트 레미니(Robert V. Remini)의 평가처럼 성인(成人) 웹스터의 신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¹⁶⁾

13) Robert V. Remini, *Daniel Webster*, 52에서 재인용.

14) 조이스 애플비(Joyce Appleby)는 미국혁명 이후에 태어난 미국민을 미국민 제1세대라고 지칭한다. Joyce Appleby, *Inheriting the Revolution: The First Generation of Americans* (Cambridge; London: Belknap Press, 2000), 2.

15) Robert V. Remini, *Daniel Webster*, 53에서 재인용.

웹스터의 기대와 달리 19세기 미국 사회는 응집력이 약했다. 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편재해 있었고, 지역 간 갈등 또한 날이 갈수록 심화됐다. 그렇다고 분열적 요소만 강했던 것은 아니다. 1812년 전쟁(War of 1812, 1812-1815)의 ‘승리’로 고취된 애국심은 국가의 자립과 안정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져 연방 결속에 대한 열망에 불을 지폈다. 일부 신진 공화파 세력(National Republicans)은 내수시장 견고화와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공통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창출하는 이른바 경제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을 표방하며 연방의 결속을 도모했다. 교통망 개발, 금융제도 개선, 보호관세 도입 등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이들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이와 같은 노선은 ‘시장 혁명(Market Revolution)’ 시대의 개막과 맞물리면서 대중적으로 큰 지지를 받았으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비판 또한 면하지 못했다.¹⁷⁾ 대표적으로 반연방파(anti-federalists)의 후예임을 자부한 남부 공화파(Old Republicans)는 국가적(national)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은 연방정부의 역할을 증대하여 궁극적으로 권력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웹스터 또한 경제 통합의 필요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제 내셔널리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그는 주로 상업 및 무역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보호 차원에서 제조업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웹스터는 경제적 통합보다 정서적 연대에서 공화국 결속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는 미국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응집력을 함축하고 있다고 믿었다. 결속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 즉 미국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시켜야 했다. 다트머스 재학 시절부터 웅변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미국의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는 이를 본인의

16) Ibid., 53.

17) 초기 공화국 시기의 경제 변화에 대한 연구는 Charles Sellers, *The Market Revolution: Jacksonian America, 1815-184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Drew R. McCoy, *The Elusive Republic: Political Economy in Jeffersonian America* (New York: Norton, 1982) 참조하라.

임무로 설정하고 연단에서 실천에 옮겼다.¹⁸⁾ 많은 연설 중에서도 필그림의 뉴잉글랜드 상륙 200주년을 기념하는 1820년 플리머스(Plymouth) 연설은 웹스터 스스로도 높이 평가했을 정도로 그의 생각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그림(Pilgrim)은 누구인가? 그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웹스터에 따르면 필그림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수한 정신에 이끌려 자발적 망명을 떠난 이들로,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었다. 아울러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자유가 허락된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안빈낙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리를 새로운 땅에 세우고자 고군분투한 개척자들이기도 했다. “민중의 동의를 근간으로 삼는 (미국의) 자유로운 정치 체제”¹⁹⁾는 그 결과물로, 그들의 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다. 웹스터는 이처럼 순수하고 고귀한 선조들의 정신은 체제의 영속을 통해 후대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선조들이 물려준 축복을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하고 존중했다는 증거를 후손들에게 남겨야 한다. 우리가 선정(good government) 및 시민·종교적 자유를 지지하고 인간의 마음을 한층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진심으로 장려한다는 증거를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다”²⁰⁾라고 강조했다.

공통의 조상, 과거와의 연속성, 같은 운명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단일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었다. 독립전쟁 첫 번째 국면(1775-1776)에서 가장 중요했던 벙커힐 전투(Battle of Bunker Hill) 기념비 건립 기공식에서 웹스터는 이 점을 역설했다. 그는 선조들의 혁명기 업적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18) 웹스터의 수사학과 웅변술에 대한 연구는 Paul D. Erickson, *The Poetry of Events: Daniel Webster's Rhetoric of the Constitution and Union*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Craig R. Smith, *Daniel Webster and the Oratory of Civil Religi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2005) 참조하라.

19) Daniel Webster, “The First Settlement of New England,” Discourse delivered at Plymouth, 22 December 1820, *The Works of Daniel Webster*, I: 34.

20) Ibid., 49.

주어진 중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24개 주(州)가 하나의 국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여느 때와 같은 태도(habitual feeling)로 임하자”고 제안했다.²¹⁾ 여기에서 웹스터가 말하는 여느 때와 같은 태도란 50년 전 벙커힐 전투 당시 영국에 맞서 모든 식민지인이 합심했던 태도를 일컫는 것으로, 그는 혁명을 추동했던 과거의 단합심을 회고하며 이를 현재로 소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country), 우리 나라 전체, 오직 우리 나라만이(원문 강조)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압제와 공포가 아닌 지혜, 평화, 자유를 상징하는 훌륭한 기념비가 되게 하여 영원토록 전세계의 동경을 받게 하소서!”와 같은 기도문 형식의 요구는 청중에 대한 직접적인 탄원에 다름 아니었다.²²⁾ 요컨대 웹스터는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합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도출했다. 그에게 미국민은 공통의 역사로부터 파생하는 상징과 실체를 공유하며,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 바로 네이션이었다.

할로 셰들리(Harlow W. Sheidley)는 웹스터가 강조하는 역사적 경험이 전적으로 뉴잉글랜드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의 함의에 주목한다. 셰들리에 따르면 통합과 합심을 외친 웹스터는 분명 ‘미국 내셔널리즘(American Nationalism)’ 형성에 기여했지만, 그 자신의 의도는 미국민의 일체감 형성보다는 연방 내에서 뉴잉글랜드의 입지를 강화에 있었다. 1812년 전쟁 이후 입지가 불안해진 뉴잉글랜드 지배계층의 일원이자 그들의 대변인이었던 웹스터는 뉴잉글랜드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연방에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플리머스와 벙커힐 전투 기념연설은 뉴잉글랜드의 정치·문화로부터 파생한 정체성을 네이션에 강요하는 적절한 수단이었다.²³⁾ 이에 따라 셰들리는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을 지

21) Daniel Webster, “The Bunker Hill Monument,” Address delivered at Charlestown, Massachusetts, 17 June 1825, *The Works of Daniel Webster*, I: 78.

22) Ibid.

23) Harlow W. Sheidley, *Sectional Nationalism: Massachusetts Conservative Leaders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 1815-1836* (Boston:

역적 내셔널리즘(sectional nationalism)의 대표적인 예시로 분류한다. 웹스터는 뉴잉글랜드의 보수적인 지배계층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셔널리즘, 보수적인 가치, 지역의 이해관계”²⁴⁾ 이 세가지를 모두 지향했지만, 전국민적(national) 통합보다 뉴잉글랜드의 위상 및 권위 회복에 관심을 가진 지역주의자가 그의 본모습이라는 것이다.²⁵⁾

기실 뉴잉글랜드는 웹스터를 이해하는데 있어 긴요한 지역이자 개념이다. 뉴햄프셔주에서 태어나 다트머스에서 교육받고, 뉴햄프셔 의원을 거쳐 메사츄사츠 의원이 된 웹스터에게 뉴잉글랜드는 고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웹스터는 뉴잉글랜드의 독특한 특징에 자부심을 가졌고 이를 플리머스 연설을 포함한 많은 연설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냈다.²⁶⁾ 당대인들 또한 웹스터를 뉴잉글랜드의 아들로 생각했다. 플리머스 연설이 끝나자 뉴욕주 재판소장 제임스 켄트(James Kent)는 웹스터에게 “뉴잉글랜드 필그림의 가장 영리한 후손 중 한 분과 우정을 나누게 되어 자랑스럽다”²⁷⁾ 는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존 아담스(John Adams)는 웹스터에게 보낸 서신에 “플리머스 연설을 눈물 없이 읽을 수 있는 미국인이 있다면 나는 그중 한 명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글보다도 진정한 뉴잉글랜드 정신을 완벽히 서술하고 있습니다”²⁸⁾고 고백했다. 이렇듯 웹스터는 자타공인 뉴잉글랜드의 수호자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뉴잉글랜드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은 사실이었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31.

24) Ibid., xi.

25) 쉐들리는 북부에 한정해서 기술하였지만 남부와 서부에서도 지역적 내셔널리즘은 팽배했다. 남부의 지역적 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로는 Brian Schoen, “Calculating the Price of Union: Republican Economic Nationalism and the Origins of Southern Sectionalism, 1790-1828,”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3, no. 2 (2003) 참조하라.

26) 일례로 웹스터는 플리머스 연설에서 뉴잉글랜드의 높은 공교육 수준을 칭찬하면서 이것의 수혜자인 뉴잉글랜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였다. Daniel Webster, “The First Settlement of New England,” *Works* I: 41-43.

27) Chancellor Kent to Mr. Webster, 29 December 1821, Fletcher Webster ed., *The Private Correspondence of Daniel Webster*, I: 319.

28) John Adams to Mr. Webster, 23, December 23 1821, *ibid.*, 318.

으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웹스터의 내셔널리즘이 지역적이라고 해서 미국적이 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뉴잉글랜드의 가치 및 이해관계는 미국민의 정서적 연대 형성을 방해하지 않았다. 최소한 웹스터는 그렇게 믿었다. 오히려 그가 보기에 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미국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뉴잉글랜드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강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뉴잉글랜드는 “일찍이 다른 주(州)보다 유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여 연방정부의 조직·설립에 유효하고도 필수적인 도움을 제공”²⁹⁾하였으며, 헌법 제정 및 비준에 앞장선 뉴잉글랜드 연방과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 권력을 적절히 제한·활용한 바 있었다. 이러한 뉴잉글랜드의 역사적 경험은 이곳이 공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실현하는 본거지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웹스터는 생각했다.³⁰⁾ 따라서 그에게 뉴잉글랜드의 이해관계가 관철된 역사관을 전파하는 작업은 곧 혁명의 유산인 공화주의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작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³¹⁾ 요컨대 웹스터는 뉴잉글랜드 전통의 견고화 및 전파를 미국민의 공통분모인 공화주의 강화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해했다.³²⁾

29) Webster, “The First Settlement of New England,” *Works* I: 33.

30) 뉴잉글랜드에서 공화주의는 18세기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식민지 시대 코네티컷주(Connecticut)의 사회·경제·정치적 변화를 연구한 리처드 부쉬만(Richard L. Bushman)에 따르면 1690년 이후 코네티컷주에서는 토지 분배 그리고 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제1차 대각성운동(The First Great Awakening)의 종교적 여파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했던 전통적 요소들이 점차 와해되었다. 그 결과 공권력이 약해졌고 사회의 구심력으로 작용했던 엄격한 필그림 정신에 부분적인 균열이 가해졌다. 한편, 이와 같은 변화는 자유에 대한 민중의 갈망이 표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 혁명기에 독립 열망의 자양분이 되기도 했다. Richard L. Bushman, *From Puritan to Yankee: Character and the Social Order in Connecticut, 1690-1765* (New York: Norton, 1967), 41-103, 147-288.

31) 초기 공화국 시기 공화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연구로는 Steven J. Ross, “The Transformation of Republican Ideology,”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0, no. 3 (1990) 참고하라.

32) 매튜스(J. V. Matthews)에 따르면 과거 식민지 시절을 미국 형성에 중요하고도 영웅적인 시기로 강조하는 관점에는 미국혁명을 부분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 1830년대 뉴잉글랜드의 휘그 역사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요한 님(Johann M. Neem)의 설명처럼 “어느 공동체든 그 안에서 공유되는 역사는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공동의 이야기에 현재를 연결하면서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한다.”³³⁾ 웹스터 또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집단 정체성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필그림과 뉴잉글랜드인의 지나온 발자취에서 ‘우리’와 ‘하나’를 발견하는 그의 모습에는 집단의 일체감 발현에 대한 기대감이 역력히 드러난다. 그러나 공동의 역사에서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는 일견 당연해 보일 수 있는 작업은 미국과 같은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 공동체’ 구성원의 사고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단결 의식 또한 부재했다.³⁴⁾ 웹스터는 보완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미국의 역사적 경험에 내재되어 있다고 믿은 응집력을 도출해야 했다.

2. 1820년대 대법원 변론: 연방정부와 헌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과물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 1812년 전쟁 이후 만연했던 통합의 열기는 경제성장의 방향과 연방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에 잠재해있는 분열적 요소가 표면화되면서 이내 식었다. 1817년 보너스 법안(Bonus Bill) 기각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었다. 당시 경제 내셔널리즘의 대표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이었던 존 칼훈(John C. Calhoun)은 미합중국 제2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의 수익 ‘보너스’와 후일 배당금을 국내 교통망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는 이와 같은 경향은 혁명을 특별히 혁명적인 사건이 아닌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일련의 가치들이 결실을 맺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건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혁명은 미국을 탄생시켰지만 미국의 정신적 토대는 이미 그보다 앞서 존재하였다. J. V. Matthews, ““Whig History”: The New England Whigs and a Usable Past,” *The New England Quarterly* 51, no. 2 (1978), 199-203.

33) Johann N. Neem,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Age,” 48.

34) Liah Greenfeld, *Nationalism*, 13.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정계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으나, 칼훈과 헨리 클레이(Henry Clay)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기각되었다. 경제 내셔널리즘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의 과거 행보를 돌아보았을 때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결코 모순적인 행보는 아니었다. 매디슨은 법안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원을 국내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헌법에 없기 때문에 헌법 수정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론적 일관성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 ‘헌법의 아버지’ 매디슨은 전자를 택한 것이다.³⁵⁾

비슷한 시기에 웹스터 또한 이론적 일관성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1816년에 워싱턴을 떠난 그는 1823년에 복귀하기 이전까지 현실 정치에서 한걸음 물러나 변호사 활동에 매진했다.³⁶⁾ 이 기간 웹스터는 미국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주요 연방 대법원 사건을 맡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도 하였다. 당시 연방대법원장은 저명한 존 마셜(John Marshall)이었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친척이자 역설적이게도 연방과의 거두(巨頭)였던 그는 일찍부터 연방의 구심점 확립 필요성을 절감하여 임기 동안(1801-1835)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애썼다. 가령 헌법재판의 효시로 꼽히는 마베리 대 매디슨(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마셜은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확립하였

35) 보너스 법안과 이를 둘러싼 정치 및 헌법적 갈등에 대한 연구는 John Lauritz Larson, ““Bind the Republic Together”: The National Union and the Struggle for a System of Internal Improvement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4, no. 2 (1987); Michael J. Hostetler, “The Early American Quest for Internal Improvements: Distance and Debate,”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29, no. 1 (2011) 참조하라.

36) 1823년에 워싱턴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웹스터는 연방대법원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웹스터의 연방대법원 활약상에 대한 연구는 Maurice G. Baxter, *Daniel Webster and the Supreme Court* (Massachusett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6) 참고하라.

다. 중앙집권화를 표방하는 마셜 법원(Marshall's Court)에서 웹스터는 개인의 자유 보호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때로는 연방정부가 강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헌법관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³⁷⁾

웹스터의 변호 활동에서 내셔널리즘의 흔적을 찾고자 한다면 그가 헌법을 어떻게(how) 해석하였는가와 더불어 헌법에서 무엇(what)을 도출하고자 하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전자가 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례로 매디슨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엄격한 해석주의(strict-constructionism)에 의거해 보너스 법안에 반대했다. 반면, 미국 경제 내셔널리즘의 시조(始祖)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함축되어 있으면 이를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볼 수 있다는 느슨한 해석주의(loose-constructionism)에 입각해 연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꾀하였다.³⁸⁾ 웹스터는 “몇몇 문제들에 관해서는 연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의 정확한 의미(원문 이태릭)와 목적을 찾는 일은 소용없다”³⁹⁾는 믿음하에 후자를 택했다. 그에게 헌법을 해석하는 작업은 적극적으로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파악해 그 의미를 추론하는 일이었다. 이하에서는 웹스터가 미국 헌정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37) 헌법 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David A. Strauss, “What is Constitutional Theory,” *California Law Review* 87, issue 3, (1999) 참조하라; 아울러 헌법 조항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상충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공화국의 정치 논쟁을 분석한 연구는 Forrest McDonald, *States' Rights and the Union: Imperium in Imperio, 1776-1876*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참조하라.

38) 엄격한 해석주의와 강력한 연방정부는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일례로 제퍼슨은 엄격한 해석주의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였지만,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연방정부의 권한은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Brian Steele, “Jefferson, Coercion, and the Limits of Harmonious Union,”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 no. 4 (2008): 839-840.

39) Daniel Webster, “The Case of Gibbons and Ogden,” Speech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February Term, 1824, *The Works of Daniel Webster*, VI: 9.

가받는 몇몇 사건들을 바탕으로 그가 찾은 사건의 헌법적 함의를 분석한다.

웹스터는 1819년 다트머스 이사회 대 우드워드 사건(Dartmouth College v. Woodward, 이하 다트머스 칼리지 사건)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각인시켰다. 이사회의 변호를 맡은 그는 ‘다트머스를 주립대학으로 전환할 권한이 뉴햄프셔주(New Hampshire) 의회에 있는가?’를 둘러싼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⁴⁰⁾ 첫째,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법인에 구속력을 갖는가? 둘째, 다트머스에 적용한 주의회 법률은 합헌인가? 웹스터의 답은 둘 다 ‘아니오’였다. 다트머스는 1769년 조지 3세가 내린 인허장에서 시작된 민간 법인이자 민간 자선단체였다. “인허장의 서문은 법인이 엘리저 휘록(Eleazer Wheelock) 목사의 요청으로 그에게 수여”⁴¹⁾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즉, 다트머스는 명백히 휘록 가문의 사유재산이었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과 같이 인허장에 명시되어 있는 휘록 가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 즉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뉴햄프셔주 의회의 법률은 구속력이 없었다.⁴²⁾

또한, 인허장의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한 주의회 법률은 개인으로부터 “그의 권리, 재산, 특권을 박탈하여 다른 이에게 수여하는 행위”⁴³⁾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위헌이었다. 법인을 설립한 인허장은 계약(contract)과 본질이 같은 것으로서 본래 계약을 맺은 당사자만 인허장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⁴⁴⁾ 웹스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동의 없이

40) 뉴햄프셔 주의회는 1816년에 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공공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내걸었다. 다트머스 칼리지 이사회의 구성원을 21명으로 확대하여 외부이사를 임명하고 대학 감사회를 설치하는 작업은 이러한 개혁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해 기존 다트머스 이사회는 권리 침해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고, 주법원이 주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다트머스 동문이자 평소 이사회와 친분이 있었던 웹스터가 이사회 변호단에 합류했다.

41) Daniel Webster, “The Dartmouth College Case,” Argument befor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0 March 1818, *The Works of Daniel Webster*, V: 463.

42) Ibid., 466.

43) Ibid., 468.

주의회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행위는 기존 법인의 권한 침해를 넘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격으로, 법인체로서 다트머스의 존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법인의 권리를 상황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권박탈(私權剝脫)과 몰수는 주권자의 권한이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⁴⁵⁾기 때문에 주의회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웹스터의 주장에 맞서 뉴햄프셔 주의회 변호인단은 대학의 공공성을 내세웠다. 교육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무작정 개인의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웹스터는 “기능과 편익 측면에서 대학은 공공성과 보편성을 떨 수 있다”⁴⁶⁾고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다트머스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휘록 목사가 자신 소유의 자본으로 자선 단체를 설립하였다는 사실과 왕이나 지역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임명한 이사들(trustees)에게 운영권을 위임한다는 계약의 내용은 교육의 성격과 무관하기 때문이었다.⁴⁷⁾ 따라서 웹스터는 다트머스가 민간 법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변하지 않으며,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이를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마셜은 계약의 신성불가침성을 강조하며 웹스터와 다트머스 이사회에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결과 법인 기득권(vested rights of corporation)과 계약 조항(contract clause) 준수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가의 사유재산보호 의무 또한 명백해졌다. 그러나 모두가 판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공화당 세력이 주를 이루었던 주의회 측은 소수 특권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수 민중의 권리가 희생됐다고 분개했다. 법인 기득권과 계약 조항은 자본가 계층의 이해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라는 것이다. 실제로 1819년 다트머스 판결은 자연인이 누리는 권리의 상당 부분을 법인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정함으로써 자유기업체제(free enterprise system)의 서막을 여는데 일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웹스터는 자본가의 마름

44) Ibid., 495-497.

45) Ibid., 469.

46) Ibid., 478.

47) Ibid., 464.

에 다름 아니었다.⁴⁸⁾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다트머스 판결이 갖는 의의는 연방 대법원이 주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했다는 사실이다. 연방 대법원은 다트머스 이사회의 손을 들어주어 뉴햄프셔 주의회에 의해 제정되고 주법원이 승인한 법률을 파기했다. 웹스터는 주의회에 맞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주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일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판결의 정치적 함의는 그의 의도와 완전히 무관할까?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의 저의는 무엇이였을까? 답변의 실마리는 미국 헌정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기변스 대 오그덴(Gibbons v. Ogden, 1824)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뉴욕주(New York) 정부가 개인에게 부여한 독점 운항권이 연방정부의 인가증(認可證)보다 우선하는지를 둘러싼 이 논쟁에서 웹스터는 통상이 연방의회의 배타적인 권한임을 천명하며 뉴욕주의 월권 행위를 고발했다.⁴⁹⁾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주법(state law)과 연방법(laws of Congress)이 충돌할 경우 헌법에 의거해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⁵⁰⁾하기 때문에 오그덴이 뉴욕주 정부로부터 받은 독점 운항권은 연방의회의 상거래 규제 권한에 따라 무효라는 것이다.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연방정부의 우월성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법률의 일관성을 기하려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웹스터는 결과론적으로 주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연방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다. 혹자는

48) 애플턴(Appleton), 카봇(Cabot), 로웰(Lowell) 가문이 주축을 이룬 보스턴 조합(Boston Associates)은 미국의 초기 산업화를 견인한 대표적인 집단이다. 웹스터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으로 분류된 제조업을 증진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했던 이들로부터 정치적 후원을 받으며 정계에서 그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웹스터와 보스턴 조합 사이의 호혜 관계에 연구는 Carl E. Prince and Seth Taylor, “Daniel Webster, the Boston Associates, and the U. S. Government’s Role in the Industrializing Process, 1815-1830,”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 no. 3 (1982) 참조하라; 아울러 보스턴 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Robert F. Dalzell Jr., *Enterprising Elite: The Boston Associates and the World They Ma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참조하라.

49) Daniel Webster, “The Case of Gibbons and Ogden,” *Works* VI: 12.

50) *Ibid.*, 22.

이를 두고 그의 목적이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에 있었다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가 지지한 일련의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웹스터는 연방대법원 판결을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 도구로만 간주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 단일함(unity)을 주조하고자 했다. 웹스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권력이 통상과 같은 문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도를 확립하거나 혹은 규칙을 제정할”⁵¹⁾ 수 없도록 헌법이 연방정부에 통상과 관련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한 자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헌법을 제정한 목적 중 하나가 “통상을 주재하는 중요한 권한을 여러 주(州)에서 연방정부(general government)로 양도하여 단일하고 보편적인 체제를 확립”⁵²⁾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다. 웹스터는 이와 같은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받들어 제도적 차원에서 단일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경제 분야에서 연방정부의 합헌적인 권한 행사는 이를 위한 발판이자 출발점이었다.

웹스터는 다양한 이해관계만큼이나 편재해 있는 미국인의 정체성을 단일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 모두를 연방정부에 기대했다. 님의 주장처럼 연방정부는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민적(national) 정치 기구로,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촉매제 역할”⁵³⁾을 할 수 있었다. 미국과 같은 다원적인 공동체에서는 문화적 친밀성만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에 웹스터는 연방정부와 헌법에 의존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웹스터의 바람과 달리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방정부의 기능과 헌법의 본질에 대한 이견이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약화했기 때문이다.

51) Ibid., 12.

52) Ibid., 11.

53) Johann M. Neem, “American History in Global Age,” 64.

Ⅲ. 국민의 형성

1.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 제1막: 지역주의 갈등

1820년대에 연방의 통합, 나아가 연방을 영구화하는 작업은 정치인들의 인식에서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방은 “연합(confederacy)의 안전, 자유, 안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원문 강조)이지 이것들의 희생을 요하는 목적 그 자체는 아니다”⁵⁴⁾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이는 비단 공화파에 한정된 생각은 아니었다. 모순적이게도 연방 탈퇴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연방파에서 먼저 나왔다. 일부 연방파는 1803년 루이지애나(Louisiana) 매입 당시 영토 확장이 북동부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연방으로부터 탈퇴하여 독립적인 ‘북부 연합(Northern Confederacy)’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⁵⁵⁾ 아울러, 이들은 뉴잉글랜드가 입을 경제적 피해를 걱정하여 1812년 전쟁에 반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자 매디슨 행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영국과의 친교를 기획하기도 했다. 비록 이러한 견해와 움직임은 소수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개진된 것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이들은 19세기 전반기에 연방이 그것의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생존이 결정되는 위태로운 존재라는 점을 몸소 방증하였다.⁵⁶⁾

54) Kenneth M. Stampp, “The Concept of a Perpetual Un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5, no. 1 (1987): 20에서 재인용.

55) Ibid., 20-23; 루이지애나 매입을 포함하여 1803-1804년에 제퍼슨 행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정책들에 대한 연방파의 입장과 반응을 다룬 연구로는 Kevin M. Gannon, “Escaping “Mr. Jefferson’s Plan of Destruction”: New England Federalists and the Idea of a Northern Confederacy, 1803-1804,”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1, no. 3 (2001) 참조하라.

56) 1812년 전쟁 이후 연방파의 입지는 현저하게 약해졌지만 그들이 미국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Shaw Livermore Jr., *The Twilight of Federalism: The Disintegration of the Federalist Party 1815-183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Stanley Elkins and Eric McKittrick, *The Age of Federalism* (New York; Oxford: Oxford

1828년에 출판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해(South Carolina Exposition and Protest, 이하 주해)』는 연방의 의의를 둘러싼 오래된 논의를 재점화했다. 『주해』의 저자는 과거 경제 통합의 필요성을 주창했지만 1820년대 들어 지역주의자로 변모한 칼훈으로, 그는 이 글에서 경제 내셔널리즘의 증추를 이루는 보호관세를 전면적으로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1828년 관세는 위헌이었다. 제조업 장려를 명목으로 농업·상업 발전을 희생시켜 특정 지역을 편애하고 세입 확보의 일환으로 관세를 수취하기 때문이었다. 칼훈은 이렇듯 ‘가증스러운 관세(Tariff of Abominations)’의 명백한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주의회는 연방법을 무효화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연방 탈퇴(secession) 권한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⁵⁷⁾ 이와 같은 『주해』의 논지는 제퍼슨과 매디슨이 작성한 켄터키-버지니아 결의안(The Kentucky and Virginia Resolutions)의 주권론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헌법 계약의 당사자로, 헌정 원칙 수호 명분에 입각해 연방정부의 권력을 견제·제한할 수 있는 합헌적 권한을 보유했다.⁵⁸⁾

『주해』가 재점화한 연방정부의 횡포, 권력 남용, 부패 논란은 곧 연방 의회로 확대되었다. 1829년 12월, 코네티컷주 의원 새뮤얼 푸트(Samuel A. Foot)는 지금까지 판매를 목적으로 조사된 국유지에 한하여 토지를 판매하고 토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 중 일부의 폐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다.⁵⁹⁾ 그러자 미주리주(Missouri) 의원 토마스 벤튼(Thomas Hart Benton)이 국유지의 조사·판매를 제한하는 푸트 결의안은

University Press, 1993) 참고하라.

57) John C. Calhoun, “The South Carolina Exposition,” December 1828, *The Works of John C. Calhoun*, VI: 1-58.

58) 켄터키-버지니아 결의안의 골자는 ‘98년도 정신(the spirit of ‘98)’으로 불리며 이후 주권론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의존하는 전거로 활용되었다. ‘98년도 정신’과 이것의 유산에 대한 연구로는 Kevin R. Gutzman, “A Troublesome Legacy: James Madison and ‘The Principles of ‘98,’”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5, no. 4 (1995) 참고하라.

59) *Register of Debates in Congress*, VI (Washington: Gales & Seaton’s, 1830), 3-4.

동부의 산업화 장려를 위해 서부 신생주의 정착·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책략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⁶⁰⁾ 곧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 로버트 헤인(Robert Hayne) 또한 푸트 결의안을 비판하며 벤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헤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유지 정책이 기실 동부의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며 그렇기에 벤튼이 우려한 대로 여타 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유지 판매로 수취한 자금이 지역의 정착과 새로운 주(州)의 건설이 아닌 국고를 가득 채우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 및 부패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했다.⁶¹⁾ 요컨대 ‘잘못된 국유지 정책’은 주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연방정부의 권력 공고화(government consolidation)에 기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연방을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⁶²⁾ 칼훈의 정치적 조력자이자 사상적 추종자로서 “주의 독립성은 미국 체제의 생명 그 자체”⁶³⁾라고 믿었던 헤인에게 주(州) 주권 보호는 연방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였다.

국유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을 당시 웹스터는 열렬한 보호무역론자로 변모해 있었다. 과거 경제 내셔널리즘을 찬양했던 칼훈이 지역주의자로 전향한 비슷한 시기에 웹스터는 지역주의자에서 경제 내셔널리스트로 전향했다.⁶⁴⁾ 그가 입장을 돌연 바꾼 데는 메사츄사츠주의 산

60) Ibid., 22-27; 벤튼은 미판매된 토지의 가격을 해마다 점진적으로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아주 값싼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1824년에 입안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1828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Ha Song Ho, 「The Jeffersonian Land Policies, 1800-1828」, 『미국사연구』, 제25호 (2007) 참조하라.

61) Robert Y. Hayne, “Speech of Robert Y. Hayne, of South Carolina” in *The Webster-Hayne Debate on the Nature of the Union*, ed. Herman Belz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0), 4-7.

62) Ibid., 10-12.

63) Ibid., 10.

64) 1828년 이후 웹스터의 경제관에 대한 연구는 Melvyn Dubofsky, “Daniel Webster and the Whig Theory of Economic Growth: 1828-1848,” *The New England Quarterly* 42, no. 4 (1969) 참조하라; 웹스터는 보호무역론자로 돌아선 이후 헨리 클레이의 ‘미국 체제(American System)’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국민 공화당과 휘그당 정치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미국 체제’에 대한

업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유지 정책은 지역의 큰 관심거리가 되었다. 산업 노동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서부의 토지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웹스터는 대법원 사건으로 분주한 와중에도 상원에서 진행되는 토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잠시 들린 상원에서 웹스터는 이내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국유지 정책으로 빌미로 동부를 비판하는 헤인의 언사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연설이 고조될수록 비판의 부당성을 확신하게 된 웹스터는 헤인이 연설을 끝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을 시작했다. 웹스터의 등장으로 국유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미국사 전체에서 손꼽히는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이하 1830년 토론)이 막을 열었다.⁶⁵⁾

첫 번째 연설(First Reply to Hayne)에서 웹스터는 동부를 변호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그는 동부를 공공의 적으로 상정하며 서부와 남부 사이에 정치적 동맹을 결성하려는 헤인의 의도를 간파하였다. 만약 헤인의 바람대로 남부와 서부가 동맹을 맺는다면 동부가 입을 정치·경제적 피해는 실로 막대할 터였다. 따라서 웹스터는 “신생주의 공유지 문제와 관련해서 뉴잉글랜드보다 더 관대한 지역은 없었다”⁶⁶⁾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실례(實例)를 제시하며 서부의 진정한 아군은 동부라는 점을 역설했다. 일례로 그는 애팔래치아 산맥(Appalachian Mountains) 너머에 북서부 준주(territory)를 설립하여 서부 진출의 선례를 만든 1787년 북서부토지조례(North West Ordinance of 1787)가 상당수 남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제정되었다고 강조했다.⁶⁷⁾

연구로는 Maurice G. Baxter, *Henry Clay and the American System* (Lexington: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5) 참조하라.

65) 웹스터-헤인 토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연구로는 Stefan M. Brooks, *The Webster-Hayne Debate: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the Union*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9) 참조하라.

66) Daniel Webster, “First Speech on Foot’s Resolution,” *Works*, III: 262.

67) 1787년 북서부토지조례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연구는 Douglas R. Hurt, “Historians and the Northwest Ordinance,” *The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20, no. 3 (1989) 참조하라.

그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부가 불공평하고 이기적이라는 근거 없고 부당한 오명을 뒤집어쓴다면(...) (좌시하지 않고) 반발할 것”⁶⁸⁾이라고 경고했다.

연설의 제1막은 남부와 동부 사이의 힘겨루기인 동시에 서부 쟁탈전이였다. 헤인이 푸트 결의안의 부당성 입증에 주력했던 반면, 웹스터는 헤인의 주장이 동부에 대한 비합리적 매도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각자 연설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요체로 삼은 내용 또한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두 연설은 공히 국유지 정책과 서부에 대한 각 지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웨인 필즈(Wayne Fields)는 웹스터가 벤튼에 응수하지 않고 서부의 토지 문제를 다른 문제들과 함께 다룸으로써 토론의 초점을 남부로 옮기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그는 서부를 남부로부터 분리하려는 웹스터의 노력은 『주해』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독트린(South Carolina Doctrine)’ 지지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나머지 민주당원을 이간질하려는 보다 거시적인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다.⁶⁹⁾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연설 제1막은 남부와 동부의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연방 정책에 관철시키려는 시도였다. 다시 말해, 연설 제1막은 상원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어느 논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웹스터는 자신의 논지를 개진하면서 보다 더 커다란 쟁점에 속하는 주제들을 건드렸다. 일례로 그는 헤인이 우려한 연방정부 공고화의 의미를 논하며 헤인이 이를 잘못 이해했다고 지적했다. 헤인이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로 이해한 강화(consolidation)는 헌법 제정자들의 용례를 미루어 볼 때, 연방정부가 아닌 연방의 결속 강화(strengthening the Union)를 의미한다는 것이다.⁷⁰⁾ 헤인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논의의 초점을 자연스럽게 연방의 결속 강화로 옮긴 웹

68) Ibid., 266.

69) Wayne Fields, “The Reply to Hayne: Daniel Webster and the Rhetoric of Stewardship,” *Political Theory* 11, no. 1 (1983): 10.

70) Daniel Webster, “First Speech on Foot’s Resolution,” *Works*, III: 258.

스터는, “(나의 이런 주장이) 연방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면 이는 오해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고백컨대, 연방의 영속에 대한 희망을 장려하고 우리의 유대를 강화하는 그 무엇이든 나는 모두 환영한다”⁷¹⁾고 부연했다. 그는 스스로를 연방의 수호자로 상정하며 자신과 다른 헤인의 사고방식을 연방의 유대를 약화하고 연방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잘못된 견해’라고 비꼬았던 것이다. 이러한 질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연방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 해주었는데, 이는 웹스터가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화두로 던졌고 이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했다. 헤인의 입장에서 이는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지만, 질타를 받은 이상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2.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 제2막: 연방과 국민

헤인은 두 번째 연설에서 주(州) 주권(state sovereignty)의 신성함과 합헌성을 집중적으로 논증했다. 그는 매디슨의 버지니아 결의안과 칼훈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독트린’을 면밀히 분석 및 인용하며 웹스터를 반박했다. 헤인의 요지는 간단했다. 미합중국 헌법은 각 주(州)가 주권자의 권한으로 제정한 문서였다.⁷²⁾ 그렇기에 계약의 당사자인 주정부는 헌법의 산물인 연방정부의 행동을 판단할 권한이 있었고, 이에 따라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헌법이 규정하는 범위에 따라 엄격히 제한”⁷³⁾할 수 있었다. 헤인에게 미연방은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연방(national union)이 아닌 주정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방(federal union)이었다. 따라서 “연방의 진정한 친구”⁷⁴⁾는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를 경계하는 자신과 같은 주권론자였다.

71) Ibid.

72) Robert F. Hayne, *Speech of Mr. Hayne, of South Carolina on Mr. Foot's Resolution* (Washington: Duff Green, 1830), 38.

73) Ibid., 36.

74) Ibid.

헤인에 웹스터는 국민으로 맞섰다. 그는 헤인의 주장이 전제부터 틀렸다고 꼬집었다. 헌법은 주정부가 아닌 미국 국민이 만든 것이었다.⁷⁵⁾ 따라서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 또한 주정부가 아닌 당연히 국민에게 있었다. 웹스터는 1787년에 연방의회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연방대법원에 부여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이 권한이 국민에 의해 연방정부에 양도되었음을 지적했다. 합헌적인 절차에 따라 “연방정부의 산하 부서가 국민에 대한 의무에 입각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헌법의 최종적이고도 확정적인 해석권을”⁷⁶⁾ 행사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정부가 그들에게 속한 권한, 권리, 자유를 명목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헤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었다. 웹스터는 이를 간명하게 한 문장으로, “주는 최고법인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권을 보유하며, 따라서 정치체로서 주의 회가 아무리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국민의 주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⁷⁷⁾고 주장했다.

웹스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인을 포함한 주권론자들이 주(州) 주권을 끝까지 관철하고자 한다면 그 결말은 연방의 와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헤인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 만약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위헌이라 판단한 1828년 보호관세를 필라델피아주가 합헌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주권을 내세워 필라델피아주의 관점을 무효화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헤인이 주장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해결책의 결과는 무력 충돌뿐이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필라델피아주가 자신들의 합헌 결정을 연방정부에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그 결과 두 정부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웹스터는 이렇듯 ‘사우스캐롤라이나 독트린’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심지어는 연방의 와해를 도모하는 원칙이라고 주장

75) Daniel Webster, “Second Speech on Foot’s Resolution,” Speech in the Senate, 26–27 January 1830, *The Works of Daniel Webster*, III: 334.

76) *Ibid.*, 328.

77) *Ibid.*, 321.

했다.⁷⁸⁾

주정부가 연방법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의 불합리성을 웹스터가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아니다. 연방의회에 은행을 설립할 권한을 인정하며 주정부의 과세권을 부정한 1819년 메리랜드 대 맥클러크(Maryland v. McCulloch) 판결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자 대법원장 마셜은 판결의 합헌성을 지지하는 익명의 글을 남겼다. 여기에서 그는 주의회가 아닌 주(州) 비준회의(state convention)가 헌법을 비준했음을 근거로 주정부와 헌법 사이의 계약 관계에 반론을 제기하며 주정부의 권한이 한정적임을 밝혔다.⁷⁹⁾ 이렇듯 웹스터의 주장은 당대인들에게 생소하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다. 물론 이는 켄터키 버지니아 결의안의 논지를 원용한 칼훈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칼훈은 단순히 ‘98년도 정신’을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연방법 무효화 이론을 정립했다.⁸⁰⁾ 그는 주정부가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지적할 수 있다는 제퍼슨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적인 연방법의 집행을 저지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마련했다.⁸¹⁾ 반면, 웹스터는 1830년 토론에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기존의 개념을 토대로 새로운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단지 그는 사회 전반에 통용된다고 볼 수 없을지라도 오랫동안 연방과 내부에서 발전해온 사상적 조류의 일부를 정리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스터의 연설에는 그만의 관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주권자로서 국민의 ‘재발견’이었다.⁸²⁾ 웹스터는 주정부가

78) Ibid., 337-339.

79) Richard E. Ellis, *Aggressive Nationalism: McCulloch v. Maryland and the Foundation of Federal Authority in the Young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11-142.

80) 칼훈의 사상에서 핵심이 되는 합의적 다수결체에 대한 연구는 James H. Read, *Majority Rule versus Consensus: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C. Calhoun*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9); Lacy K. Ford Jr., “Inventing the Concurrent Majority: Madison, Calhoun, and the Problem of Majoritarianism in American Political Thought,”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60, no. 1 (1994) 참조하라.

81) James H. Read and Neal Allen, “Living, Dead, and Undead: Nullification Past and Present,” *American Political Thought* 1, no. 2 (2012): 274-275.

아닌 미국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다는 사실의 함의를 강조했다. “헌법이 고안·채택된 주된 이유는 주정부의 대행 혹은 주정부의 견해와 재량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부를 설립하기 위해서”⁸³⁾였다.

혹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정부가 국민을 참을 수 없는 압제로부터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경우 국민은 주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혁명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주의회의 (연방법) 무효화는 상황을 바꾸지 못하며 또한 저항을 합법화하지도 못한다.⁸⁴⁾

헌법 제정을 통해 주체적인 존재로 자기 선언한 국민은 주정부로부터의 자유로울 권한이 있었다. 웹스터는 “아직도 우리는 주정부의 재량과 주정부가 내리는 해석에 좌우되어야 하는가?”⁸⁵⁾라고 반문하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보존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갈 것”⁸⁶⁾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과거 연합헌장(Article of Confederation) 시절의 향수에 젖어 있는 듯한 주권론자들에게 지금은 헌법의 시대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웹스터는 진정한 국민 주권 보호를 위해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⁸⁷⁾ 헤인은 연방정부를 주정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82) 주권자로서 국민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Fritz, G. Christian.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참조하라.

83) Daniel Webster, “Second Speech on Foot’s Resolution,” *Works*, III: 334.

84) *Ibid.*, 335.

85) *Ibid.*, 334.

86) *Ibid.*

87) 이와 같은 생각을 웹스터는 일찍부터 견지했다. 가령 그는 기번스 대 오그던 사건에서 “연방정부(general government)는 주정부가 지역 공동체에 더 크게 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주정부 또한 공익과 헌법에 의거하여 연방의회에 배타적인 권한이 주어지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Daniel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연방정부 또한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양도 받은 국민의 대리인이었다.⁸⁸⁾ “대통령, 상원, 하원, 즉 연방정부 전체는 국민의 정부(popular government)”⁸⁹⁾로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기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웹스터는 두 정부의 올바른 권리 및 의무 행사는 헌법의 참된 목적이기도 한 공동의 이해관계 구성이라고 주장했다.⁹⁰⁾ 국민은 “대중의 안녕에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주(州)의 통합으로 형성된 연방(Union of the States)”⁹¹⁾을 희망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리자는 이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의 자유 및 이해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독트린’의 폐기는 연방 통합의 일환이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웹스터는 주정부의 권력 행사 그 자체를 빌미로 헤인을 지탄하지 않았다. 주(州) 주권의 행사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합헌적인 행위로, 웹스터 또한 이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모든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와 부합해야 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 독트린’은 국민의 의지와 무관한 주정부의 의지라는 점에서 위헌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정리하자면, 1830년 웹스터-헤인 토론은 헌법과 연방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이었다. 헤인과 웹스터는 각자의 관점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 및 적합한 권한 행사에 대한 논리 개진을 통해 밝혔다. 헤인은 연방정부의 월권행위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헌법 계약의 당사자로서 주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웹스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두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실행에 옮겨야 하는 의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 웹스터는 국민의 주권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합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자유 먼저 연방 나중에”와 같

Webster, “The Case of Gibbons and Ogden,” *Works* VI: 13.

88) Daniel Webster, “Second Speech on Foot’s Resolution,” *Works*, III: 322.

89) *Ibid.*, 333.

90) *Ibid.*, 291.

91) *Ibid.*, 341.

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지어다(...) 자유와 연방은 지금과 같이 앞으로 영원히 하나이며 불가분하다!”⁹²⁾는 사실을 유념할 것을 독촉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개진된 웹스터의 주장에는 그의 국민 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웹스터에게 미국 국민은 연방과 헌법의 연결고리로서, 연방과 헌법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하고 동시에 두 정치 구조의 지배를 받는 집단이었다. 다시 말해, 미국 국민은 미국의 독특한 정치 구조 안에서 형성된 정치적 집합체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다니엘 로저스(Daniel T. Rodgers)가 정확히 표현했듯이, 웹스터에게 “국민은 헌법적인 주권자”⁹³⁾였다.

92) Ibid., 342.

93) Daniel T. Rodgers, *Contested Truths: Keywords in American Politics Since Independ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104.

IV. 국민의 수호

1830년 토론에 당대인들은 열광했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웹스터의 두 번째 연설은 소책자로 출판된 이후 세 달여 동안 약 4만 부 이상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헤인조차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불멸해야 한다”⁹⁴⁾고 말하며 웹스터의 연설이 미국민에게 선사한 감정적 울림을 인정했다. 웹스터는 1830년 토론으로 말미암아 일약 전국적인 명사(名士)로 거듭났다.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 향상을 위한 구름판으로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 1832년 연방법 무효화 위기(Nullification Crisis)로 고조된 연방의 정치적 갈등은 연방과 헌법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이내 종식되었다.⁹⁵⁾ 또한 그는 1836년 대선에 4명의 휘그당 후보 중 한명으로 출마했지만 오직 메사추사츠주만의 지지를 얻으면서 참패했다. 이렇듯 웹스터가 정치적인 성과를 얻는데 번번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정치적 역량 부족도 분명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19세기 전반기에 두드러진 변화가 주요했다. 사회·경제적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가 진행되고 정치적으로 대중정치 시대가 열리면서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들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문제들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840년대에 서부로의 영토 확장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자 웹스터에게도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

94) Robert V. Remini, *Daniel Webster*, 329.

95) 1832년 연방법 무효화 위기(Nullification Crisis)에 관한 연구는 Richard E. Ellis, *The Union at Risk: Jacksonian Democracy, States' Rights and the Nullification Crisi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William W. Freehling, *Prelude to Civil War: The Nullification Controversy in South Carolina, 1816-183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를 참조하라; 아울러 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한 연구로는 Matthew S. Brogdon, "Defending the Union: Andrew Jackson's Nullification Proclamation and American Federalism," *The Review of Politics* 73, no. 02 (2011)를 참고하라; 또한, 미국사에서 연방법 무효화 논쟁이 갖는 의의에 대한 연구로는 Keith E. Whittington, "The Political Constitution of Federalism in Antebellum America: The Nullification Debate as an Illustration of Informal Mechanisms of Constitutional Change," *Publius* 26, no. 2 (1996) 참조하라.

왔다.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정신적·물질적 변화 앞에서 연방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미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불가피해졌다.⁹⁶⁾

1840년대 미국 사회는 새로운 이념에 경도됐다. 『민주평론 Democratic Review』의 편집인 존 오설리번(John L. O’Sullivan)은 1845년 여름호에서 텍사스의 연방 합병을 촉구하며, “미국의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대륙 전체에 영토를 확대하여 이를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자치 정치의 위대한 실험의 발전을 위해 신이 미국인에게 부여한 운명”⁹⁷⁾이라고 주장했다. 명백한 운명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방했던 남부 민주당은 영토 팽창을 공화주의와 자유 원칙 수호의 일환으로 묘사했다. 그들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인구 과밀, 토지 고갈, 임금 노예제(wage slavery)와 양립 할 수 없”⁹⁸⁾기 때문에 미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해 영토 팽창은 필수적이었다. 반면, 휘그당은 영토 팽창론자들의 주장은 노예제 존립 및 남부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영토 확장 열기는 탐욕과 인구의 광범위한 확산을 수반하여(...) 시민의 덕성에 필수적인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저해할 것”⁹⁹⁾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영토 팽창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다.¹⁰⁰⁾ 상당

96) 로버트 달zell 주니어(Robert F. Dalzell Jr.)에 따르면 웹스터 내셔널리즘 연구는 내셔널리즘의 형성기인 1830년대에 집중하는 연구와 남부와 북부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이른바 내셔널리즘이 위기를 맞는 1840년대 이후를 집중하는 연구로 구분 가능하다. Robert F. Dalzell Jr., *Daniel Webster and the Trial of American Nationalism 1843-1852* (Houghton: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73), x.

97) Daniel Walker Howe, *What Hath God Wrought: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 1815-184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703쪽에서 재인용; 명백한 운명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Thomas R. Hietala, *Manifest Design: American Exceptionalism and Empi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참고하라.

98) Michael A. Morrison, ““New Territory versus No Territory”: The Whig Party and the Politics of Western Expansion, 1846-1848,” *The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23, no. 1 (1992): 28.

99) Ibid.

100) 미국 휘그당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Michael F. Holt,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Whig Party: Jacksonian Politics and the Onset of the Civil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Daniel Walker

수 휘그당원은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만(San Francisco Bay)을 발판 삼아 아시아로 진출할 날을 고대하였다. 일찍이 제퍼슨이 예견한 ‘자유의 제국(Empire of Liberty)’ 건설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말 그대로 미국의 명백한 운명이었다.

웹스터 또한 ‘자유의 제국’ 건설에 적극적이었다.¹⁰¹⁾ 그는 일찍부터 ‘자유의 제국’의 한 축을 차지하는 자유 전파에 열의를 보였다. 일례로 그는 그리스 독립 전쟁(Greek War of Independence, 1821-1832)을 둘러싼 미국의 외교적 입장을 논하는 1824년 상원 연설에서 신성동맹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미국의 그리스 투쟁 지지를 독촉했다. 웹스터는 자유를 위한 지난날의 투쟁을 회고하며,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신성동맹의) 극악무도한 원칙들을 비난하며 거부하고 나서야 할 적당한 때가 아닌가?”라고 자문했다.¹⁰²⁾ 그리고 “시민·종교적 자유 원칙에 입각해 나날이 발전하는 미국이 신성동맹에 동의한다면 이는 우리 (미국의) 원칙에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자 오명”¹⁰³⁾이라고 자답했다. 요컨대 웹스터에게 그리스와 같은 탄압받는 지역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은 미국의 사명(使命)인 자유를 전파하는 외교적인 작업이자 미국이 “시민적·종교적 자유의 대의명분에 빛지고 있다”¹⁰⁴⁾는 본질적인 사실을 환기시키는 국내 문제이기도 했다.

Howe,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American Whi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참조하라; 아울러 휘그당의 영토팽창 정책에 대한 연구는 Michael Morrison, “Westward the Curse of Empire: Texas Annexation and the American Whig Party,”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0, no. 2 (1990) 참조하라.

101) 국무장관 역임 시절 웹스터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연구는 Kenneth E. Shewmaker, “Forging the “Great Chain”: Daniel Webster and the Origin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Pacific, 1841-1852,”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9, no. 3 (1985) 참고하라.

102) Daniel Webster, “The Revolution in Greece,” Speech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2 April 1824, *The Works of Daniel Webster*, III: 74.

103) Ibid.

104) Ibid., 76.

미국적인 가치의 전파와 수호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웹스터가 멕시코 전쟁(Mexican War, 1846-1848)에 공공연하게 반대한 근거였다. 기본적으로 웹스터는 멕시코 전쟁을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제임스 포크(James K. Polk)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추동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¹⁰⁵⁾ 웹스터는 국가보다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포크 대통령의 만행을 하루 빨리 저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⁰⁶⁾

나는 지난 몇 년간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것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권한은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다. 다른 경우에 그랬던 것과 같이 만약 우리가 이 권력에 굴복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은 더 강해져서 앞으로 이에 저항하기 힘들어질 것이다.¹⁰⁷⁾

연방정부의 권력 강화 못지않게 큰 문제는 멕시코 전쟁이 수반하게 될 공동체 차원의 변화에 있었다. 웹스터는 멕시코 전쟁이 “정부의 중심을 뒤흔들 수 있는 논쟁거리를 초래”¹⁰⁸⁾하리라 예상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인구였다. 뉴멕시코 지역의 인구는 연방의 다른 주(州)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었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주(州)가 형성되어 연방에 편입된다면, 새롭게 형성된 주(州)는 상원과 하원 사이의 균형 관계를 불가피하게 파괴”할 것이었다.¹⁰⁹⁾ 여기에서 말하는 균형의 파괴란 대표제의 불균형을 의미했다. 헌법에 따르면 연방의 모든 주는 두 명의 상원의원과 인구 규모에 비례하는 하원의원을 배출해야 했는데, 이는 새롭게 연방에 편입되는 주(州)에게도 예외

105) Daniel Webster, “Objects of The Mexican War,” Speech in the Senate, 23 March 1848, *The Works of Daniel Webster*, V: 282-283.

106) Ibid.

107) Ibid., 299.

108) Daniel Webster, “The Mexican War,” Speech in the Senate, 1 March 1847, *The Works of Daniel Webster*, V: 259.

109) Daniel Webster, “Objects of The Mexican War,” *Works*, V: 289.

없이 적용됐다. 문제는 멕시코 전쟁 결과 새롭게 편입될 주(州)의 인구가 5천명에서 6천명 남짓이라는데 있었다.¹¹⁰⁾ 당시 뉴잉글랜드의 가장 작은 주(州)인 로드 아일랜드주(Rhode Island)의 인구가 10만명 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가히 우려할 만한 문제였다.¹¹¹⁾ “특정 주(州)의 경우 하원의원보다 상원의원 숫자가 더 많아지게”¹¹²⁾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정치적 균형의 파괴는 연방 와해로 가는 지름길이였다. 정체(政體)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도미노 효과처럼 연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차례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웹스터는 이미 앞선 1830년 연설에서 확인한 바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독트린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뉴멕시코의 연방 편입은 이러한 결과를 실제로 가져올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뉴멕시코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이질적이었기 때문이다.

뉴멕시코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 곳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우리의 제도를 알고 있는가?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 중 하나라도 그들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민주 정치(popular government)의 개념이 있는가? 전혀 없다! 이에 대한 일말의 개념도 그들에게는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들이 스스로 정체를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¹¹³⁾

웹스터에게 뉴멕시코인들의 ‘무지(無知)’는 그들의 연방 편입을 반대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였다. 이는 미국민과 뉴멕시코인 사이의 연대감 형성을 가로 막는 장벽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대통령 선출에 있어 뉴멕시코인과

110) Ibid.

111) Percy Wells Bidwell, "Population Growth in Southern New England, 1810-1860,"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5, no. 120 (1917): 813.

112) Daniel Webster, "Objects of The Mexican War," *Works*, V: 289.

113) Ibid., 297-298.

뉴잉글랜드 주민 사이에 공감대는 형성 될 수 없을 것이었다. 전자는 후자의 사고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헌정 원칙을 모르기 때문이었다.¹¹⁴⁾ “그들은 우리, 우리의 일부(원문 이탈리아)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다”¹¹⁵⁾는 웹스터의 단호한 기준만큼 그의 결론도 확고했다. 뉴멕시코인들은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마땅한 자리는 연방의 내부가 아닌 외부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인종주의의 전형이었다.¹¹⁶⁾ 웹스터는 뉴멕시코인들을 공화주의에 무지하다는 근거로 매도했으며, 심지어 이들이 앞으로 미국의 정체(政體)를 습득할 가능성마저 부인했다. 이처럼 강한 인종주의는 당대에 팽배해 있던 사고방식 중 하나로,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 예외성(uniqueness), 개별성(separateness)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¹¹⁷⁾ 로날드 타카키(Ronald Takaki)는 그의 대표작 『철의 옥사 Iron Cages』에서 19세기 미국사회가 공화주의 수호를 위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탁월하게 보여주었다. 타카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왕정과 같은 상위 권력이 부재한 ‘자유로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엄격히 규제·단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근본적 토대를 이루는 공화주의를 수호하고자 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개인의 타

114) Ibid., 300.

115) Ibid.

116)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은 미국성(Americanness)의 보호와 재생산을 위해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를 활용했다. 가령 식민지 시절 뉴잉글랜드인들은 원주민들을 미개한 인종으로 취급하고 업신여겼는데, 이는 그들로부터 토지를 강탈하는 ‘야만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이자 동시에 타지에서 영국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식민지인들은 모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영국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성과 완전히 대비되는 특징을 자신들이 경계하고 혐오한 원주민들의 생활방식에 투영했다. Ronald Takaki, “The Tempest in the Wilderness: The Racialization of Savage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9, no. 3 (1992): 904-911.

117) Reginald Horsman, *Race and Manifest Destiny: The Origins of American Racial Anglo-Saxo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44.

락에 대한 우려와 결부되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타카키는 이처럼 공화주의 미덕에 대한 집착이 심화되는 현상이 19세기 내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당대의 미국인들이 ‘공화주의 옥사’에 갇혔다고 묘사했다. 인종에 따른 차별은 ‘공화주의 옥사’를 단단하게 하는 창살이었다. 원주민과 흑인에 대한 인종적 차별은 미국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국민 정체성의 본질을 갈구하게끔 하는 외부적 충격 요소로 활용되었다. 요컨대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미국 공화주의를 재생산하는 수단이었다.¹¹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웹스터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한 이유는 미국민과 미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였다. 웹스터는 뉴멕시코인 교화에 뜻이 있지 않았다. 그들이 멕시코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에 그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뉴멕시코가 영토적으로 미연방에 합병되어 뉴멕시코인이 미국사회에 정치·문화적으로 편입되는 순간 시작되었다. 공화주의는 제퍼슨의 주장과 같이 가치와 이해관계의 합의하에서 가장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구 구성이 동질적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지속·향상될 수 있다고 웹스터는 믿었기 때문이다.¹¹⁹⁾ 다른 역사적 경험 안에서 상이한 정치·문화 체계를 발전시킨 뉴멕시코인은 동질성을 와해하는 요소였다. 그들이 연방에 편입된다면 공화주의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가 토대로 삼는 미국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

이렇듯 뉴멕시코인에 대한 웹스터의 배타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의 내셔널리즘과 국민 관념을 종합할 수 있다. 웹스터에게 미국민은 공화주의의 정치·문화적 경험 체계 안에서 구조된 공화주의자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역사적 경험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헌법과 연방에 대한 정치적 인식을 검토하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통치 형태이면서 동시에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정치·문화체계인 공화주의를 국민 정체성의 본질로 확립하

118) Ronald Takaki, *Iron Cages: Race and Culture in 19th-century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15, 36-65, 80-144.

119) Ibid., 39.

려는 시도였다. 다른 정치·문화적 토대의 산물인 뉴멕시코인의 배척 또한 공화주의 범주 내에서 국민 정체성을 형성 및 확립하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은 하나의 국민을 주조하려는 그의 정치적 과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내 삶의 일부였던 공직 생활에서 나는 헌법이 의도한대로 미합중국의 국민 보호를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의 이해관계, 하나의 속성, 하나의 정치의식(political feeling)을 가진 **하나의 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¹²⁰⁾

웹스터는 스스로 국민 정체성의 본질로 상정한 공화주의를 수호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연방의 통합과 국민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뉴멕시코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내부적 통합이 수반하는 배제의 원리에 다름 아니었다.

120) Daniel Webster, “Objects of The Mexican War,” *Works*, V: 300.

V. 결론

국민 정체성이 아무리 가변적일지라도 그 중심을 구성하는 요체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웹스터는 미국의 구심점을 찾고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사람 중 한명으로, 그가 찾은 중심은 헌법이었다. 웹스터에게 헌법은 혁명의 화룡점정이었다. 혁명의 유산에 강한 애착을 갖고 이것의 불멸을 후대인의 사명이자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그는 헌법 수호를 역사적 사명의 구체적인 양태로 이해했다.¹²¹⁾ 따라서 그는 헌법의 의미와 그 기저에 깔린 헌법 제정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헌법 제정의 목적이 연방의 통합에 있으며 이를 위해 때로는 연방 정부의 권력을 활용해야만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주장을 헌법의 본질이 국민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개진했다. 모든 실타래의 끝에는 하나의 실이 있듯이 헌법의 끝에는 국민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구심점을 확립하는 작업이 곧 국민 정체성을 규명하는 작업과 맞닿아 있음을 웹스터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웹스터가 이해한 국민, 즉 그의 국민 관념은 무엇이였을까? 웹스터는 자신의 국민 관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추진한 정책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개진한 논리에는 국민에 대한 그의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 가령 그는 1830년 토론에서 연방, 헌법,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미를 도출했다. 그에게 국민은 주권자이며, 헌법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연방의 안녕과 운명을 같이 하는 ‘헌법적인 존재’였다. 동시에 웹스터에게 국민은 문화적인 집단이기도 했다. 미국민이 공통의 조상, 공통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문화적으로 동질하다는 근거였다.

사실 문화적 공통성에 따른 정서적 연대감이야말로 웹스터가 생각한 미

121) Daniel Webster, “Adams and Jefferson,” A Discourse in Commemoration of John Adams and Thomas Jefferson, 2 August 1826, *The Works of Daniel Webster*, I: 147.

국 국민의 시볼레트(shibboleth)¹²²⁾였다. ‘헌법의 수호자’와 ‘연방의 수호자’라는 별칭은 웹스터의 가치관이 정치적인 요소로 점철되어 있으리라는 인상을 심어 주어 때로는 문화적인 요인에 대한 그의 관심을 간과하게 만든다. 그러나 웹스터가 국민 정체성을 순전히 정치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역사적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가 보여 주듯이 그는 문화적 공통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그는 미국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이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없는 뉴멕시코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었다. 요컨대 웹스터에게 미국민이란 공화주의의 정치·문화적 경험 체계 안에서 형성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것의 외부에 놓인 집단은 미국민이 될 수 없었고, 따라서 미국민의 수호를 위해 배척해야 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 모든 노력이 웹스터 스스로 밝혔듯이 하나의 국민을 주조하는 그의 궁극적 목적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이다. 웹스터는 연방의 통합을 정치적 과제로 삼은 내셔널리스트였다. 그는 연방의 와해를 가장 두려워했고 따라서 연방의 통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 그가 국민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유는 바로 국민이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그 자체로 통합의 원동력을 갖고 있었다. 지역, 계층, 성별 간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모두는 같은 미국인이었고 따라서 미국의 안녕과 운명을 같이했다. 다시 말해, 미국민은 미국의 안녕을 바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였다. 웹스터는 미국민 사이의 정치·문화적 연대감 강화를 통해 바로 이 본질적인 하나됨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하나라는 자각은 연방의 통합을 열망하는 출발점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웹스터는 미국의 국민 정체성이자 곧 미국민을 규정하는 정치·문화적 특징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연방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은 그가 표방한 내셔널리즘에서

122) 한 집단이 다른 집단과 구별되기 위해 행하는 관습을 가리키는 말로, 성서에서 ‘sh’를 발음할 수 없었던 에브라임 사람을 길르앗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참고문헌

I. 1차 사료

1. Daniel Webster

Webster, Fletcher, ed. *The Private Correspondence of Daniel Webster*.
vol. 1.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7.

Webster, Daniel. *The Works of Daniel Webster*. 6 vol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853-1877.

2. 기타

Belz, Herman, ed. *The Webster-Hayne Debate on the Nature of the
Union: Selected Documents*. Indianapolis: Liberty Fund, 2000.

Calhoun, John C. *The Works of John C. Calhoun*. vol 6.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870.

Hayne, Robert. *Speech of Mr. Hayne of South Carolina on Mr. Foot's
Resolution*. Washington: Duff Green, 1830.

Register of Debates in Congress. vol. 6. Washington: Gales &
Seaton's, 1830.

II. 2차 사료

1. 단행본

Altschuler Glenn C. and Stuart M. Blumin. *Rude Republic: Americans*

- and Their Politics in the Nineteenth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Appleby, Joyce. *Inheriting the Revolution: The first Generation of Americans*. Cambridge; London: Belknap Press, 2000.
- Baxter, Maurice G. *Daniel Webster and the Supreme Court*. Massachusett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66.
- _____. *One and Inseparable: Daniel Webster and the Union*. Cambridge; Lond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_____. *Henry Clay and the American System*.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95.
- Bender, Thomas. "Historians, the Nation, and the Plenitude of Narratives." In *Rethinking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Age*, edited by Thomas Bender, 1-2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 Breen, T. H. *The Marketplace of Revolution: How Consumer Politics Shaped American Independ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Brooks, Stefan M. *The Webster-Hayne Debate: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the Union*. 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9.
- Brown, Thomas. *Politics and Statesmanship: Essays on the American Whig Par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5.
- Bushman, Richard L. *From Puritan to Yankee: Character and the Social Order in Connecticut, 1690-1765*. New York: Norton, 1967.
- Dalzell, Jr., Robert F. *Enterprising elite : The Boston Associates and the World They Made*.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Daniel Webster and the Trial of American*

- Nationalism 1843-1852*.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1973.
- Elkins, Stanley and Eric McKittrick. *The Age of Federalism*.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Ellis, Richard E. *The Union at Risk: Jacksonian Democracy, States' Rights and the Nullification Crisis*.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Aggressive Nationalism: McCulloch v. Maryland and the Foundation of Federal Authority in the Young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Erickson, Paul D. *The Poetry of Events: Daniel Webster's Rhetoric of the Constitution and Un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1.
- Freehling, William W. *Prelude to Civil War : The Nullification Controversy in South Carolina, 1816-183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Fritz, G. Christian.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 Grant, Susan-Mary. *North Over South: Northern Nationalism and American Identity in the Antebellum Er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 Greenfeld, Liah.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Hietala, Thomas R. *Manifest Design: American Exceptionalism and Empi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5.
- Holt, Michael F. *The Rise and Fall of the American Whig Party: Jacksonian Politics and the Onset of the Civil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Horsman, Reginald. *Race and Manifest Destiny: The Origins of American Racial Anglo-Saxonis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Howe, Daniel Walker.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American Whig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 _____. *What Hath God Wrought: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 1815-184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Livermore, Jr., Shaw. *The Twilight of Federalism: The Disintegration of the Federalist Party 1815-183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McCoy, Drew R. *The Elusive Republic: Political Economy in Jeffersonian America*. New York: Norton, 1982.
- McDonald, Forrest. *States' Rights and the Union: Imperium in Imperio, 1776-1876*.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0.
- Nathans, Sydney. *Daniel Webster and Jacksonian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 Peterson, D. Merrill. *The Great Triumvirate: Webster, Clay, and Calhou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Read, James H. *Majority Rule versus Consensus: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C. Calhoun*.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9.
- Remini, Robert V. *Daniel Webster: The Man and His Tim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7.
- Rodgers, Daniel T. *Contested Truths: Keywords in American Politics Since Independen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Sellers, Charles. *The Market Revolution: Jacksonian America, 1815-184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Sheidley, Harlow W. *Sectional Nationalism: Massachusetts*

- Conservative Leaders and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 1815-1836*.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8.
- Smith, Craig R. *Daniel Webster and the Oratory of Civil Religion*. Columbia: University of Missouri, 2005.
- Takaki, Ronald. *Iron Cages : Race and Culture in 19th-century Americ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Taylor, Alan. *American Colonies: The Settling of North America*. New York: Penguin Books, 2002.
- Waldstreicher, David. *In the Midst of Perpetual Fetes: The Making of American Nationalism, 1776-1820*.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7.

2. 논문

- Apap, Christopher. "The Genius of Latitude: Daniel Webster and the Geographical Imagination in Early America."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30, no. 2 (2010): 201-223.
- Bidwell, Percy Wells. "Population Growth in Southern New England, 1810-1860." *Publication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5, no. 120 (1917): 813-839.
- Brogdon, Matthew S. "Defending the Union: Andrew Jackson's Nullification Proclamation and American Federalism." *The Review of Politics* 73, no. 02 (2011): 245-273.
- Brooke, John L. "Cultures of Nationalism, Movements of Reform, and the Composite-Federal Polity: From Revolutionary Settlement to Antebellum Crisis."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9, no. 1 (2009): 1-33.
- Dubofsky, Melvyn. "Daniel Webster and the Whig Theory of Economic

- Growth: 1828-1848.” *The New England Quarterly* 42, no. 4 (1969): 551-572.
- Fields, Wayne. “The Reply to Hayne: Daniel Webster and the Rhetoric of Stewardship.” *Political Theory* 11, no. 1 (1983): 5-28.
- Ford Jr. Lacy K. “Inventing the Concurrent Majority: Madison, Calhoun, and the Problem of Majoritarianism in American Political Thought.”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60, no. 1 (1994): 19-58.
- Gannon, M., Kevin. “Escaping “Mr. Jefferson’s Plan of Destruction” : New England Federalists and the Idea of a Northern Confederacy, 1803-1804.”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1, no. 3 (2001): 413-443.
- Gustafson, Sandra M. “Daniel Webster and the Making of Modern Liberty in the Atlantic Worl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116, no. 2 (2006): 395-412.
- Gutzman, R. Kevin. “A Troublesome Legacy: James Madison and ‘The Principles of ‘98.’”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5, no. 4 (1995): 569-589.
- Ho, Ha Song. 「The Jeffersonian Land Policies, 1800-1828」, 『미국사연구』, 제25호 (2007): 31-60쪽.
- Hostetler, Michael J. “The Early American Quest for Internal Improvements: Distance and Debate.” *Rhetorica: A Journal of the History of Rhetoric* 29, no. 1 (2011): 53-75.
- Hurt, Douglas R. “Historians and the Northwest Ordinance.” *The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20, no. 3 (1989): 261-280.
- Larson, John Lauritz. ““Bind the Republic Together”: The National Union and the Struggle for a System of Internal Improvements.”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4, no. 2 (1987): 363-387.
- Matthews, J. V. ““Whig History”: The New England Whigs and a Usable Past.” *The New England Quarterly* 51, no. 2 (1978): 193-208.

- Morrison, Michael. "Westward the Curse of Empire: Texas Annexation and the American Whig Party."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0, no. 2 (1990): 221-249.
- _____. "“New Territory versus No Territory”: The Whig Party and the Politics of Western Expansion, 1846-1848." *The Western Historical Quarterly* 23, no. 1 (1992): 25-51.
- Neem, Johann N. "American History in a Global Age." *History and Theory* 50, no. 1 (2011): 41-70.
- Parish, Peter J. "Daniel Webster, New England, and the West."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54, no. 3 (1967): 524-549.
- Prince, Carl E. and Seth Taylor. "Daniel Webster, the Boston Associates, and the U.S. Government's Role in the Industrializing Process, 1815-1830."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 no. 3 (1982): 283-299.
- Read, James H. and Neal Allen. "Living, Dead, and Undead: Nullification Past and Present." *American Political Thought* 1, no. 2 (2012): 263-297.
- Ross, Steven J. "The Transformation of Republican Ideology."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10, no. 3 (1990): 323-330.
- Schoen, Brian. "Calculating the Price of Union: Republican Economic Nationalism and the Origins of Southern Sectionalism, 1790-1828."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23, no. 2 (2003): 173-206.
- Shewmaker, Kenneth E. "Forging the "Great Chain": Daniel Webster and the Origin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East Asia and the Pacific, 1841-1852."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9, no. 3 (1985): 225-259.
- Stamp, M. Kenneth. "The Concept of a Perpetual Un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5, no. 1 (1978): 5-33.

- Steele, Brian. "Thomas Jefferson, Coercion, and the Limits of Harmonious Union." *The Journal of Southern History* 74, no. 4 (2008): 823-854.
- Strauss, David A. "What is Constitutional Theory." *California Law Review* 87, issue 3, (1999): 581-592.
- Takaki, Ronald. "The Tempest in the Wilderness: The Racialization of Savage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79, no. 3 (1992): 892-912.
- Thelen, David. "The Nation and Beyond: Transnational Perspectives on United States Hist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6, no. 3 (1999): 965-975.
- Whittington, Keith E. "The Political Constitution of Federalism in Antebellum America: The Nullification Debate as an Illustration of Informal Mechanisms of Constitutional Change." *Publius* 26, no. 2 (1996): 1-24.
- Zagarri, Rosemarie. "The Significance of the "Global Turn" for the Early American Republic: Globalization in the Age of Nation-Building." *Journal of the Early Republic* 31, no. 1 (2011): 1-37.

Abstract

National Identity of the Early American Republic: Daniel Webster and His Notion of the Nation

Heesoo, Cho
Western History Depart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isty

This thesis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national identity in the era of the Early Republic of the United States. Having in mind that national identity is a sense of belonging and thus a subjective feeling that should be accessed through diverse channels, this article narrows its scope to one prominent figure of the day: Daniel Webster. Daniel Webster was a leading American statesman and an outstanding spokesman for American nationalism who was deeply influenced by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Federalists. In this sense, Webster has been frequently described as an ardent and loyal supporter of the legacy of the Federalist Party and their conservative republicanism. His nationalism has been mainly examined as a means of projecting certain political interests and compared to the arguments of states' righters in a theoretical manner.

Contrary to many previous accounts, though true in many ways, Webster's nationalism was not only a tool for his own political objective. Underlying his argument lies a set of ideas which reveals his own conceptualization of the nation and national identity. Americans in the Early Republic era faced the question of how both to

culturally and politically consolidate the nation. Webster found his own answer in the Constitution and the Union. As the leading constitutional scholar of his generation, Webster proclaimed that the Constitution was made by the people and that the people through the Constitution projected their own will such as promoting general welfare. His struggle of stressing the need of forming a more perfect Union and restraining state sovereignty, both core arguments of his nationalism, were means to uphold what he thought was the will of the people. In this regard, Webster understood the American nation as a constituted community of people upholding the Union and the Constitution both for their own benefits and the unification of the whole.

Webster also highlighted the cultural aspects of the nation. Being aware that political elements were insufficient to stabilize and unify the community, he struggled to make clear the embedded cultural commonality of the people which he believed certainly existed within the American nation. Recalling important accomplishments of the past such as the American Revolution and the memory of devotion and cooperation which were essential in bringing out communal victory were all efforts to awaken the commonality of the people. By inkindling emotional solidarity inherent in the community, Webster expected the people to realize that the nation was destined to be one.

Ruling out the possibility of New Mexicans joining the Union was part of preserving cultural commonality and cohesion of the nation. Webster fervently opposed to the Mexican War which many at that time regarded as “Manifest Destiny.” He believed that American republicanism which was the basis and essence of national identity could only be cultivated within the nation’s cultural and political sphere. Therefore, New Mexicans who originated from 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would not be able to sympathize with the nation, thus a potential harm for unity. Webster regarded the American nation as a Republic of republicans and believed that the best way to preserve it was to exclude 'the unrepUBLICans.'

In conclusion, Webster's commitment to the Union, the essence of his nationalism, was closely linked to defining the boundaries of the nation. He identified the nation as a cultural-political community founded on republicanism and the Constitution.

Keywords: Daniel Webster, Nation, Nationalism, Republicanism, Constitution, Union

Student Number: 2013-20044